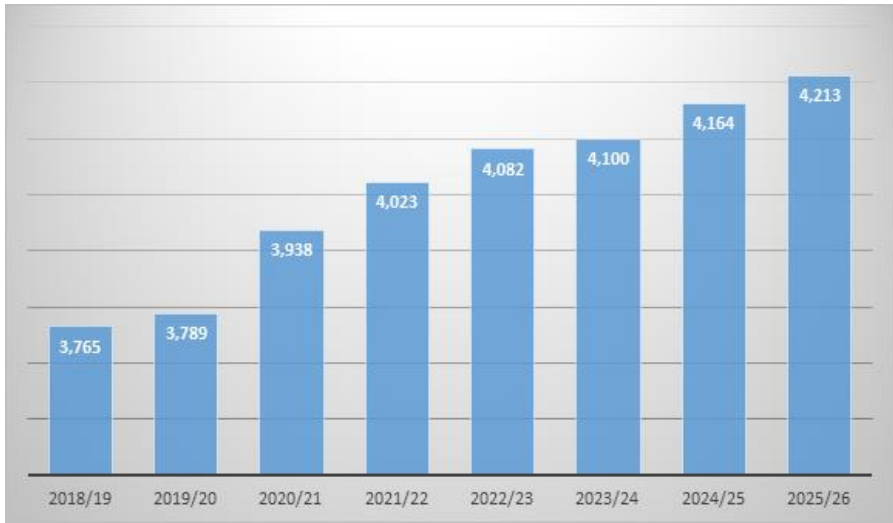


호주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 시장 동향

아이비스 월드(IBIS World)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22년 호주의 자동차 부품 소매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59억4400만 호주달러(40억2290만 달러)로 집계되며, 2022/23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60억3100만 호주달러(40억8178만 달러)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등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대신 기존 차량을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자동차 부품 소매 시장 매출 동향 및 전망> (단위: US\$ 백만)
[자료: IBIS World]

호주 소매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은 일반 부품, 액세서리, 전기 전자 부품으로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 가능하다. 2021/22년 기준 동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 규모를 보유한 품목은 일반 부품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스쿠터 등에 사용되는 신규 및 중고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시장의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브레이크, 충격 흡수 장치, 펌프, 배터리 등을 포함한다. 동 부문은 지난 5년간 호주 자동차 부품 소매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한편, 자동차 휠(Wheel), 시트 커버, 안전벨트, 번호판 프레임 등 자동차 액세서리는 동 시장 매출의 23.7%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매출 규모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물류 파동,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연이은 경기 불황으로 비필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지난 5년간 전반적 매출 하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네비게이션, 와이퍼, 시동 장비 등 전기 및 전자 부품은 전체 시장의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품목은 전체 시장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호주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 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

호주는 2017년 10월부터 완성차 제조사인 포드, 도요타, GM홀덴 3사가 완전 철수하여 자동차 부품시장은 애프터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1년 기준 호주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소매 시장 규모는 85억3,000만 달러(한화 약 11조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근 5년동안 0.7%의 성장세를 보였다.

*애프터마켓 (After Market): 자동차 제조업체나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한 후에 발행하는 여러가지 수요(정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2차 시장

	2018	2019	2020	2021 (예상)
현지 생산 및 서비스	5.14	5.16	5.2	5.35
수출	1.2	1.25	1.25	1.27
수입	4.33	5	4.5	4.45
시장 규모*	8.27	8.6	8.45	8.53

<2018~2021년 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소매 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제조사 철수와 함께 현지의 높은 인건비와 내륙 운송비용은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를 만들면서 자동차 부품 수입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애프터마켓 제품 수입량은 2019년 역대 최대인 50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물류비용 급상승, 주별 국경 봉쇄 및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한 소비 둔화로 2021년에는 44억5,000만달러로 1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요 국가를 보면 호주 정부와 중국 정부간의 정치적 이슈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호주 시장의 최대 수입 파트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일본, 태국, 독일, 한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현대, 기아 등의 한국산 브랜드가 전체 승용차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면서 관련 부품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배터리, 차량용 블랙박스 등 일부 제품은 한국산 제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배터리(HS Code: 8507.10 기준)는 2021년 호주 전체 수입량의 52.6%를 차지했으며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국가인 필리핀,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호주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HS Code 870894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칼럼 및 스티어링 박스(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For Motor Vehicles)에 대한 호주 수입규모는 2022년 기준 약 713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호주의 자동차 부품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내륙간 이동과 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교체주기 연장으로 지난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17년 10월 부 호주 내 자동차 제조 공장이 전면 폐쇄되며 현지의 부품 제조 역시 화물차량, 산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 중소형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2022년에 2519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부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동 제품 전체 수입 시장의 35.3%를 차지한다. 이외에는 대만이 전체 수입의 11.9%를 차지하며 2위, 독일이 10.9%로 3위 그리고 일본이 10.4%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1.2%를 점유하며 13위에 머물렀다. **호주는 2022년 한국으로부터 88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부품(자동차용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칼럼 및 스티어링 박스)을 수입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2.9% 상승, 2020년 대비는 51.8% 이상 하락한 수치다.**

순위	국가명	수입액			시장 점유율			2021년 대비 2022년 증감률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전체	49,797	62,561	71,338	100.0	100.0	100.0	14.0
1	미국	20,276	24,082	25,186	40.7	38.5	35.3	4.6
2	대만	2,504	4,828	8,473	5.0	7.7	11.9	75.5
3	독일	5,373	7,943	7,770	10.8	12.7	10.9	-2.2
4	일본	5,405	5,775	7,391	10.9	9.2	10.4	28.0
5	중국	3,655	4,606	4,957	7.3	7.4	6.9	7.6
6	태국	1,604	2,281	2,393	3.2	3.6	3.4	4.9
7	스웨덴	1,008	1,691	2,318	2.0	2.7	3.2	37.1
8	인도	1,080	1,640	1,892	2.2	2.6	2.7	15.4
9	멕시코	426	1,306	1,642	0.9	2.1	2.3	25.7
10	이탈리아	1,049	1,530	1,311	2.1	2.4	1.8	-14.4
13	한국	1,816	851	876	3.6	1.4	1.2	2.9

<최근 3년 호주 자동차 부품 제품 (HS Code 870894)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2023.6.14.)]

호주 자동차부품 시장 동향

● 유통구조

호주의 자동차 부품 시장은 B2C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소매상 및 온라인 판매사를 통한 유통 그리고 전문 부품 도매 업체 및 정비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B의 도매 대상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주의 대형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소매업체로는 슈퍼칩 오토(Supercheap Auto), 렉코(Repco), 오토반(Autobarn), 오토프로(Autopro)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업체들은 전체 소매 시장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호주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중소 규모의 소매업체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산업 성숙도가 높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 관세율

HS Code 870894에 대한 호주의 對 **한국 수입 관세율은 0%이다.** 세부 품목에 따라 기본 관세율 5%를 부과하는 제품군이 있으며 일부는 기본 관세율 역시 0%를 적용 받고 있다. 한국은 2014년 12월 한국-호주 FTA를 체결함에 따라 HS Code 870894 및 이하 세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되었다. 이외에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es)가 부과된다.

● 인증

호주 자동차 부품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는 경쟁 및 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으로 관련 법은 주마다 상이하다. 해당 경쟁 및 소비자법은 공급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간 이해 관계를 포함해 호주 시장 대부분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호주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한편, 중고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일부 제품에는 안전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카시트 등에는 대한 최소 표준 등 규정이 적용된다.

● 시사점

호주는 전세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각종 브랜드와 차종에 사용 가능한 부품 공급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호주에서 높은 판매율을 자랑하는 일본산 자동차와 지속 시장을 확장해가는 한국 브랜드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수요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국내 자동차 제도가 전무한 만큼 신차 대상의 부품 수요는 현지에서의 조립 및 설치 시장을 보유한 일부 화물차나 트랙터, 산업용 차량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승용차 부품은 애프터 마켓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 제품의 호주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며 수입 제품간 경쟁이 지속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품의 현지화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